



서 평

세대, 한국형 위계 구조의 핵심 차원*

(이철승. 2019.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지성사.)

이상직 _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불평등의 세대』는 한국사회 불평등의 특징에 관심 있는 이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철승은 나와 우리의 위치가 출생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출생 시점의 구속력이 한국사회 위계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힌다. 이 글은 세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 책의 주장을 요약한다. 둘째, 책의 의의를 데이터에 근거한 본격 코호트 연구이자 비교사회(불평등)론의 시론으로 평가한다. 셋째,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책의 주인공인 386세대가 누구인지 묻는다. 이철승이 한국형 위계 구조의 핵심으로 꼽은 연공제가 무엇인지 묻는다. 세대 불평등이 어느 정도까지 한국 고유 현상인지 묻는다.

* 초고를 읽어주신 주윤정 박사님과 사사노 미사에씨에게 감사드린다.

1.

이철승은 386세대가 자기 몫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을 어떤 기준에서 더 많이 갖고 있는지 밝히는 곳이 1장 후반부와 2장 후반부다. 어떻게 더 많이 갖게 되었는지 밝히는 곳이 1장 전반부와 2장 전반부다. 더 적게 갖고 있는 이가 청년과 여성임을 밝히는 곳이 5장이다. 6장에서는 왜 지금과 같은 체제가 지속되기 어려운지 밝힌다. 마지막 7장에서는 현 체제를 바꿀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까지가 책의 모체인 논문(이철승 2019)의 열개와 같다. 책에서 추가된 3장과 4장은 나머지 장과 결이 다르다고 보고, 여기에서 논하지 않는다.

1장에서 이철승은 386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정치권력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로 확인한 연령대별 시민사회조직 가입률(1996~2010년)이다. 2010년 기준 1960년대 출생집단(코호트)¹⁾ 대졸자의 가입률이 단연 높고, 60년대생 비대졸자 가입률도 높다(55쪽).²⁾ 이철승은 이 코호트가 시민사회에서 축적한 네트워크 자원에 힘입어 정치권력을 장악했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연령대별 국회의원 입후보자 수와 당선자 수(1996~2016년)다. 절대 비중과 다른 연령대와의 비중 차이에서 60년대생 비중이 가장 크다(72~73쪽).

2장에서는 경제권력을 검토한다. 지표는 노동시장 지위와 가구 소득이다. 노동시장 지위는 임금, 지위, 근속 연수로 확인한다. 첫째, 통계청

1) 이하 '60년대생'으로 약칭하고, 이 규칙을 다른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이 책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페이지 번호만 표기한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2004~2015년)로 “결합노동시장지위”(이철승 2017)를 구성해 상·중·하층 지위별 임금 수준과 연령 구성비를 제시한다.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 중소기업 정규직, 무노조 대기업 정규직이 포함되는 상층에서 2015년에 50대(60년대생)가 차지한 비중이 2004년에 50대(50년대생)가 차지한 비중보다 두 배 높다(109쪽). 둘째, 국내 100대 기업 임원의 연령대별 비중(1998~2017년)을 제시한다. 40년대생과 50년대생이 50대였을 때는 비중이 각각 45%와 55%였으나 60년대생이 50대인 2010년 후반에는 70%가 넘는다(107쪽). 셋째, 근속 연수다. 50대 근속 연수는 지난 10년간 변함없으나 40대 근속 연수는 같은 기간 약 2년 줄었다(112쪽). 마지막으로 가구 소득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1990~2016년)를 활용해 가구주의 코호트에 따른 소득 변화율을 제시한다. 대졸자로 국한하면 1963년생은 2007년에 1992년 월 소득보다 71.7%를 더 벌었으나 1972년생은 2016년에 2002년보다 21.3%를 더 벌었다(120쪽). 코호트별 가구주의 소득점유율 추이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난다. 1995년에 60년대생의 비중이 27.5%였다면, 2005년에 70년대생은 16.2%였고, 2015년에 80년대생은 10.2%였다(126~127쪽).

우리는 이철승이 제시한 자료를 통해 386세대가 가지고 있다는 정치 권력과 경제권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더 많이’의 기준이 이전, 또는 이후 출생 코호트가 동일 연령대였을 때 가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질문은 ‘어떻게’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기 등판하여 장기 생존”(81쪽)했기 때문이다. 핵심 변수는 한국사회의 변동과 이들의 생애가

만남 타이밍이다. ‘출생 시점이 중요하다’가 이철승이 말하는 세대론의 핵심이고, 이철승이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파악하는 관점이다. 이철승은 코호트별로 다른 기회와 제약 구조에 대응하면서 서로 다른 역량과 전략을 만들어간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가 코호트별 권력 차이이다. 386세대는 한국사회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각각 재편되던 국면에서 변화를 추동하거나 활용했다. 이들의 네트워크는 재편 결과이자 재편 요인이었다. 이들의 세대 정체성이 다른 세대와 달리 “능동적”(22쪽)으로 형성된 맥락이다. “이 책은 세대 간의 다른 경험과 그에 기반한 ‘세력화’의 과정이 어떻게 불평등을 만들어내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18쪽)라는 문장은 그런 뜻이다.

이러한 논리 전개에서 세대 개념에 관한 이철승의 독특한 시각이 드러난다. 이철승은 ‘세대’를 자원 동원의 통로가 되는 수평 연결망으로, 즉 “자원 동원 네트워크”(33쪽)로 본다.³⁾ 네트워크 규모와 응집성은 출생 시점이 결정한다. 60년대생은 한국전쟁 직후의 혼란기가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 상당한 규모로 태어났다. 상당수가 대학생이 되었으며 고도경제성장기에 20대를 보냈다. 권위주의 정권과 대결하면서 20대에 일찌감치 네트워크 결속력을 다졌고, 지역이나 학벌 등 기존 균열선을 이념으로 통합하면서 네트워크 범위를 넓혔다. 이들이 사회(시민사회와 시장)로 나간 1980년대 후반에 정치권력이 교체되었으며, 이들이 노동시장에 이미 자리를 잡았던 1990년대 후반에 경제권력이 교체되었다. 이념과 전문성을

3) 이 시각의 짝은 이철승의 전작(2019[2016])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내세워 시민사회에서 구축한 네트워크를 발판삼아 2000년대에는 정치 권력도 장악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상호 강화하면서 2010년대에 와서는 한국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이것이 '조기 등판과 장기 집권'의 기본 스토리다. 이철승의 표현으로 정리하면,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와 세계화의 결과는 윗세대인 산업화 세대의 퇴장이었으며, 시장의 위계화로 인한 결과는 386세대가 상층을 점유하고 있는 위계 구조로의 아랫세대의 편입 및 복속이었다"(82쪽).

이철승의 독특한 시각이 드러나는 또 다른 지점은 "대대세대" 개념이다(62쪽). 대세대는 10년 단위 코호트인 '소소세대' 세 개를 합친 30년 단위 코호트로, 한국사회의 권력교체 주기를 반영한다. 1930~50년대생이 한 대세대가 되고, 1960~80년대생이 다음 대세대가 된다. 각 대세대에서 첫 번째 소세대는 리더가 되고 뒤이은 두 소세대는 추종자나 지지자가 된다. 60년대생은 전후에 권력교체를 이룬 대세대의 리더다. 이 대세대가 권력을 잡아간 시기가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이다. 60년대생의 힘은 리더 소세대로서의 프리미엄 효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철승이 타이밍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맥락 또한 강조한다. 이철승은 세대 간 불평등 구조가 형성되고 강화되는 바탕이 동아시아 체제, 좁게 보면 한국형 체제의 위계 구조라고 주장한다. 동아시아 체제의 핵심은 벼농사 생산 체제에서 비롯된 협업 양식이다(152쪽). 벼농사는 대량의 물과 집약된 노동력을 요구해 마을 단위 협업 체계와 집단주의를 낳는다. 벼농사는 축적된 기술과 지식(의 계승)도 요구한다. 나이가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생산 체제의 최소 단위는 가족,

또는 소농이며, 이것이 마을과 국가로 확대되는 것이 동아시아 사회 시스템이다. 각 단위에서 리더는 연장자 중 뛰어난 이가 맡는다. 유교의 연장자 우대 시스템은 노동 분업을 반영한 것이다.

이철승은 위계 구조의 함의를 얇은 체계로 확장한다. 동양사회에서 얇은 자기 위치 파악에서 시작되는 자기 역할 찾기가. 목적은 지위 상승이다. 서구사회에서 얇은 자신과 신의 관계 이해에서 시작되는 소명 찾기가. 동양사회에서 얇은 목적이 아니라 권력 창출 도구지만 서양사회에서 얇은 목적이다. 이철승은 동양사회의 획일성과 집단 중심성 또한 벼농사 체제 고유의 인구·전쟁 압력에서 기인했다고 본다(292쪽). 요약하면, 동아시아 위계 구조의 핵심은 연공제이고, 집단주의다.

이철승은 한국형 위계 구조의 특징으로 네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나이에 기반한 연공서열이다. 둘째는 시험을 통한 관료제 진입과 승급 원리다. 셋째, 이 두 서열에 기반한 세대 내 경쟁과 협력, 그에 따라 창출된 리더의 권력 독점이다. 넷째, 강력한 혈통 상속 욕구다. 이철승은 앞의 두 가지 즉 “나이에 기반한 연공제와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제”(277쪽)를 특히 동아시아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시험과 같은 공식 장치만 내부 경쟁을 규율하지는 않는다. 이철승이 “조폭적”(279쪽)이라고 규정한, 윗사람과의 관계가 규정하는 비공식 선발 장치도 작동한다. 자격자와 비자격자의 구분 속에서 나이(연공)에 따라 형성된 위계가 한국형 위계 구조다.

이것이 출생 시점이 권력의 차이로 이어지는 맥락이다.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의 핵심 축은 생산수단 소유 유무가 아니라 나이이고, 좀 더 정확히는 출생 시점(몇 년도에 몇 살이었는지)이다(275쪽). 60년대생의 권력 독점은

나이를 기준으로 한 동아시아 위계 구조에 한국사회 변동의 특수한 맥락이 결합된 결과다.

이철승은 한국형 위계 구조가 이제는 효력을 잃었다고 진단한다(6장).⁴⁾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벼농사 체제에서와는 달리 지위와 능력이 더 이상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이의 가치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이 가진 경쟁력을 벼농사 체제에 기반을 둔 다른 후발 경쟁자가 급속도로 습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이 체제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386세대는 자신의 네트워크 힘으로 아랫세대를 억누르고 있다(302쪽). 이철승은 이 구조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전망한다. 밖으로는 국제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지고 안으로는 성원 충원 실패로 이어져, 구조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철승은 해법으로 “사회적 자유주의”(327쪽)를 제안한다(7장). 자유주의 요소를 도입해 위계를 해체하고 시장위험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은 강화한다. “국가와 노조, 고용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정규직의 특권을 축소하고 유연화의 비용을 사회적으로 감당하는 방식”(345~346쪽)이다. 위계 해체 방안은 세 가지다. 첫째, 임금피크제와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임금상승률 수용이다. 특히 노동시장 상위 20%가 해당된다. 줄인 돈은 청년 신규 고용에 사용한다. 궁극적으로는 임금체계를 ‘연공제’에서 ‘직무제’로 전환한다. 둘째, 연금제도 개편이다. 386세대 이상 세대의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거나 축소한다. 셋째, 보유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4) 5장에서는 이 구조의 희생자로 여성과 청년이 언급되는데, 상세 내용 요약은 생략한다.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희생자 범주에 노인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 자산증식활동에 세금을 엄격히 매긴다. 걷힌 세금 역시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쓰도록 법제화한다. 이 세 가지를 묶어 이철승은 “386세대의 ‘두 번째 희생’”(338쪽)이라고 부른다.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의 핵심은 취업 및 창업 알선기관을 운영하는 등 국가가 고용과 훈련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2.

이 책은 스케일이 크다. 여러 각도에서 많은 이야기를 끌어낼 힘이 있다. 여기에서는 다만 두 가지 각도에서 이 책의 의의를 짚는다.

첫째, 내용이 갖는 의의다. 이 책은 사회경제적 위치로 세대 관계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2007년에 출간된 『88만원 세대』(이하 『88만원』이라 약칭함)를 잇는 저작이면서도, 세대 관계의 실체를 다양한 자료로 실증하고 불평등의 동학까지 설명한다는 점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저작이다.

우석훈과 박권일은 『88만원』에서 당시 10대와 20대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위치를 불평등한 세대 관계로 설명했다. 10~20대와 40~50대의 관계에서 10~20대가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⁵⁾ 이후 세대 연

5) 우석훈과 박권일은 자신의 책을 이렇게 규정한다. “이 책은 성실하게 살기를 강요받으면서 꿈쩍할 수 없이 공부라는 틀에 묶여 있는 지금의 10대·20대와, 젊은 시절에 낭만을 한껏 누렸던 사람들이 같은 사회 혹은 같은 국민경제 속에 살며 발생하게 되는 ‘불균형’에 관한 책이다”(17쪽). 우석훈과 박권일은 전후 세대를 다섯 개—6.25세대, 유신세대, 386세대, X세대, 88만원 세대—로 구분하고 88만원 세대가 유신세대 및 386세대와 맺은 관계를

구가 쏟아졌으나 다수는 담론을 분석한 세대 문화론으로 향했다.⁶⁾ 무엇보다 『88만원』이 청년 세대에 대한 기성 세대의 혼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는 이후의 세대론이 ‘청년론’으로 좁혀진 배경이기도 했다. 청년 세대(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재)규정하려는 작업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대론 자체의 허구성, 정치성을 강조하는 작업들이 간간히 나왔다. 급기야 최근에는 세대론 비판이 주된 시각으로 자리잡았다. 입장은 각기 다르지만 이들 연구에서 분석 단위는 역사적·문화적 담론 공동체로서의 ‘세대’이지, 사회경제적 위치 공동체로서의 ‘코호트’는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위치로서의 세대 관계를 다시금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서야) 전면에 내세운 작업이 나온 것이다. 세대 프레임의 도식성, 위험성을 지적하는 입장이 좀 더 주목받는 학계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런 작업은 일정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자가 청년이 아닌 자기가 속한 집단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점도 같은 맥락에서 눈길을 끈다.

이 책은 코호트로서의 세대 관계를 자료에 근거해 규명했다는 점에서 『88만원』을 넘어선다. 사회경제적 위치에 주목한 연구가 없지는 않았지

강조한다. 유신세대는 “한국경제의 영광의 30년 동안에 20대에서 40대를 보내게 된 사람들”(172쪽)이고, 386세대는 문화자본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정치세력으로 가장 끈끈하게 결속되어 있으며 연공서열 사다리에 마지막으로 올라 탄 사람들이다. 유신 세대는 사회에서는 의사결정권자의 자리에서 88만원 세대의 경쟁을 강요한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부모-자식 관계로 한 팀이 되어 다른 가족과 경쟁한다. 386세대는 중간 관리자로 신참자인 88만원 세대와 대면한다. 관계의 성격이 다를지 몰라도 88만원 세대를 착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러한 진단에 따라 우석훈과 박권일은 20대의 저항과 기성 세대의 성찰을 촉구한다.

- 6) 한편으로는 ‘청년=실업, 비정규직’ 도식을 전제로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계량연구가 쏟아져 나왔다.

만 이 책과 같이 다양한 자료로 코호트를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이미 소개했지만, 이철승은 매우 다양한 자료를 일관된 방식으로 분석해 분명한 스토리를 만들어 냈다. 자료원이 다양하면 산만할 수 있지만 이 책은 산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연령을 통제해 코호트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일관되게 쓰기 때문이다.⁷⁾ 널리 알려진 자료를 활용한 점에도 놀랐다. 비교적 평범한 자료에서 통찰을 끌어내는 과정을 따라 쫓으면서 자료도 다시 보게 되었다. “데이터에 기반한 세대론”⁸⁾이라는 자평에 십분 동의한다. 수식이나 숫자를 내세우지 않고 분석 결과 대부분을 그래프로 제시한 것도 장점이다.

둘째, 시각이 갖는 의의다. 이것이 이 책의 진정한 가치다. 시각은 “세대를 통해서 보는 위계구조론”⁹⁾이라는 표현으로 압축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드러난다.

결국, 이 책은 ‘세대론’의 프리즘을 통해, 그리고 ‘한국형 위계 구조’라는 틀을 통해 한국 사회의 ‘계층화 과정’ 및 ‘불평등 구조’를 해부하는 프로젝트다. (...) 우리는 방송과 신문에서 불평등의 수치들을 ‘현상’으로 접하지만, 그 수치들은 이러한 무수한 전략들이 쟁투하는 과정의 최종 결

7)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좀 더 섬세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구조(규모) 변화 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연령대별 근속기간이나 소득상승률과 같은 평균값 비교에서는 괜찮지만, 연령대별 구성비와 같은 비중 비교에서는 표준화가 필요해 보인다.

8) 문학과지성사의 저자 인터뷰(<https://www.youtube.com/watch?v=zYiQteLj4Qw>)

9) 문학과지성사의 저자 인터뷰(<https://www.youtube.com/watch?v=zYiQteLj4Qw>)

과물일 뿐이다. 더 정확히는 상호 쟁투하며, 그 쟁투와 경쟁의 과정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원 동원과 축적이 더 유리하도록 도모하는 사회 그룹들 간의 ‘물밑’ 그리고 ‘물위’ 싸움의 잠정적 스냅샷들일 뿐이다(28쪽).

그렇다. 이 책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주목한다. 불평등 구조를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관련 세력들의 경합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으로 본다. 이런 시각으로 이 책은 특정 시점에서 포착한 세대 구조 주장과 계급 구조 주장의 대립으로 짜인 기존 논의의 틀을 깬다. 처음 이 책의 제목을 보고는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세대 불평등’도 아니고 ‘불평등 세대’도 아닌, ‘불평등의 세대’라니. 세대 불평등이라면 세대 간 불평등을 말한다고 짐작했을 테고, 불평등 세대라면 세대 내 (즉 계층) 불평등을 말한다고 짐작했을 것이다. “불평등의 세대”는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세대 간이든 세대 내이든 불평등을 한국사회 특유의 방식으로 구조화하는 축으로 세대 개념을 강조한 표현으로 짐작한다.

나는 이 지점이 갖는 의미를 ‘세대론을 사회변동론의 맥락에 자리매겼다’로 표현하고 싶다. 이 말은 한국에 한정된 용례로도, 보편 용례로도 쓰일 수 있다. 적어도 이 책은 세대론이 작동하는 맥락을 한국사회, 나아가 동아시아 사회의 위계 구조로 확장함으로써 세대를 한국형 위계 구조의 변동을 해명하는 시각으로 격상했다. 동아시아 위계 구조라는 맥락을 “자원 동원 네트워크”로서의 세대 개념과 맞물려 불평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확연히 돌려놓는다. ‘세대’로 봐야 ‘계층’도 보이고, 세대 프레임으

로 봐야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의 성격과 불평등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평 제목은 이러한 함의를 강조한 표현이다.

그러나 접하는 시각이 새로울수록 기존 시각의 관성도 더 잘 느껴진다. 다음 절에서는 관성에서 비롯된 질문을 몇 가지 던지고자 한다.

3.

첫 번째 질문은 386세대가 누구인가다. 이 책의 주인공은 386세대다. 그런데 386세대의 범위가 책 전체에서 일관되지 않다. 넓게는 60년대생을 가리킨다. 우리가 코호트라고 부르는 범주다. 다음으로는 대졸자를 가리킨다. 좁게는 경제와 정치 영역 상층에 진입한 엘리트를 가리킨다. 자료로 보면, 국회의원 입후보자나 100대 기업 임원 자료에서 적용되는 범주는 엘리트에 가깝다. 가구주의 출생 코호트별 가구 소득 비중을 제시할 때에 범주는 대졸자다. 이외 여러 자료를 제시할 때에는 60년대생이 된다. 서술 방식에서도 세 범주는 혼용된다. 다음과 같은 언급이 한 예다.

세대별로 각기 다른 '이념과 정체성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경쟁하며 쟁투하는 과정에서, 각 세대별로 다른 수준의 응집성을 갖는 '세대 엘리트 집단'이 출현한다. 나는 이러한 세대 간 다른 수준의 응집성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17쪽).

사실 세대에 따른 '네트워크 위계'의 형성, 그로부터 수혜를 받는 과정은 '상층' 노동시장에 한정된 이야기다. '386세대'라는 담론도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이들을 지칭하여 만들어진 사회적 '집단화'의 일환일 뿐이다. (...) 세대라는 큰 정체성은 사실 그 내부에서 잘게 쪼개진 형태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115~116쪽).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386세대는 누구인가? 1960년대에 태어난 이들인가, 대학졸업자인가, 정치·경제 영역의 상층에 진입한 엘리트인가.¹⁰⁾ 기존 세대론에서는 범위 확인이 중요하지 않을지 모른다. 문화론에서 세대는 일종의 정체성으로 묶이고 그 경계는 객관 지위 경계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호트 연구를 표방하면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인하는 연구에서는 주어의 범위가 중요하다. 어느 한 범주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세 범주를 좀 더 의식적으로 구별해 일관되게 사용할 필요가 있고, 세 범주의 관계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이 책은 분명하지 않다.

주어의 범위를 구별하지 않으면 386세대를 주어로 한 문장의 뜻이 모호해질 수 있다. 일례로 세대 간 불평등과 세대 내 불평등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보자. 이철승은 세대 간 불평등과 세대 내 불평등이 상

10) 여기에서는 계층 관점에서만 범위를 구획했지만, 같은 질문이 젠더 관점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386세대는 따지고 보면 남성이다. 5장을 보면 그렇다. 그런데 이 점이 잘 부각되지 않는다. 제시하는 자료에서도 그렇고, 서술에서도 그렇다. 대부분의 자료에서 남 녀가 구분되지 않는다. 여성은 386세대 권력 독점의 피해자로 다루어지는 5장에 가서야 별도로 언급된다.

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논리가 명확하지는 않다. 세대를 출생 코호트로 보면, 둘은 상충하는 것이 맞다. 특정 세대가 전체 부를 독점하면, 나머지 세대가 가진 부의 크기는 줄고, 총량이 줄면 분산도 준다. 이 철승은 자산 이전이라는 고리로 세대 간 계층화와 세대 내 계층화를 연결하지만, 그렇게 연결되려면 386세대 전체가 아니라 세대 내 특정 세력(엘리트)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범위를 좁히면, 세대보다는 계층 스토리와 가까워진다.

386세대의 권력 독점 과정과 권력 독점 타파 방안을 논하는 부분에서도 모호한 지점이 있다. 386세대 권력 독점의 원인을 이철승은 기본적으로 '운'으로 본다. "출생 시기에 기반한 세대간 차이라는 것이, 원래 이러한 (개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다"(120쪽). 물론 운의 차이가 큰 차이를 낳은 한국형 위계 구조의 맥락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 사회가 되풀이하는,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세대의 운-행운과 불운'을 제도적으로 평탄화시켜야 한다"(9쪽)는 이를 염두에 둔 언급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386세대의 역량과 의지를 강조하는 구절도 많다. 해법을 논하는 7장에서는 주체의 의지가, 특히 386세대 리더의 "희생"이 강조된다. 그렇다면 구조와 운, 주체의 관계는 무엇인가. 가령 누구의 희생이 어떤 식으로 가능하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원인 진단과 해법 제시에서 셋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는 386세대의 범주를 구별하는 작업과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철승이 한국형 위계 구조의 핵심으로 규정한 연공제의 성격이 무엇인가다. 이철승은 줄곧 한국사회가 연공제 사회고, 연공

질서의 토대가 벼농사라는 점을 강조한다. 연공제는 동아시아 체제의 핵심으로까지 확장된다. “동아시아는, 그중에서도 한국은 연공의 효과가 강력한 사회다. 조직에서 나이 먹다 보면 적당히 함께 승진하는 사회인 것이다”(119쪽). 이철승은 이 체제가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한국사회가 위기에 처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이 과연 연공제 사회인가 의문을 갖게 되는 지점이 많다. 이철승에 따르면 386세대가 권력을 독점하게 된 것은 ‘조기 등판해 장기 생존’했기에, “마냥 기다리지 않았”(39쪽)고 마냥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행태는 연공제 질서와 부합하지 않는다. 책에는 연공제 규칙 위반이 이미 산업화 세대에서 시작되었다는 언급도 있다. 40대에 상승 사다리가 끊어지자 “조직을 뒤엎는 도박을 감행했다”(86쪽)는 것이다. 연공제는 이미 두 번 깨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 질문이 잇따른다. 386세대는 연공제를 따랐기에 권력을 독점한 것인가, 따르지 않았기에 권력을 독점한 것인가.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이철승이 핵심 개념으로 제시한 “네트워크 위계”(20쪽)는 연공제적 질서인가.

만일 386세대의 권력 독점이 연공제 파괴의 결과라면, 연공제의 한계로 위계 구조의 위기를 설명하는 부분은 설득력을 상당 부분 잃는다. 연공제의 공고함이 아니라 연공제의 허약함이 불평등의 원인이자 체제 위기의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86세대의 권력 독점이 연공제 덕분이려면 이들의 ‘조기 등판 및 장기 생존’과 연공제 지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물론 나이는 한국사회에서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핵심 차원이다.¹¹⁾ 그

러나 이 말을 꼭 연공제로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해 정이환(2002)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정이환은 ‘한국이 연공제의 나라인가’라고 묻고, “임금구조는 연공적인데 근로자들은 기업에 장기 근속하지 않는”(262쪽)다고 답한다. 한국은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임금 연공성이 강하지만 연공성이 적용되는 이들은 대기업 정규 노동자로 한정된다. 다수는 연공 임금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거나 연공에 따른 임금 인상 수혜를 누릴 만큼 오래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실로 정이환이 한국은 연공제의 나라가 아니라고 확답하는 것은 아니다. 정이환이 강조하는 것은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 구조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언급은 이 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무엇보다도, 기업 내 장기고용을 포함하는 사회체제 유형을 한국에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데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회체제는 일본형, 동아시아형, 공동체형 등 여러 가지로 불리우는데, 이런 유형을 한국의 특징으로 보는 입장은 모두 한국에서 장기고용이 일부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상황을 보면 한국 노동시장에는 공동체보다는 시장의 원리가 훨씬 폭 넓게 적용된다고 해야 할 것

11) 한국인이 상대방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집하는 정보는 나이다. 성별도 있지만 이 정보는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기수문화라는 표현도 있듯이 보통은 나이 관계와 위계 관계가 포개진다(서로 익명인 두 사람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말도 “너 몇 살이야?”다). 그에 따라 연령 규범과 나이 의식도 강한 편이다. 이런 점에 주목해 한국사회를 연령 분절적 사회로 평가(김기현 2018, 95~96)하기도 한다.

이다. 또한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고용체제의 뿌리를 유교문화에서 찾으려는 논의의 문제점도 드러내었다고 생각된다(284쪽).

결국 궁극한 것은 이철승이 말하는 연공제의 성격이다. 이철승은 연공제를 나이에 따라 지위가 배분되는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책의 곳곳에서 다른 원리를 시사하는 조건도 언급한다. 능력 없는 윗사람을 치는 체제로도(227쪽),¹²⁾ 능력 없이도 버티는 체제(302쪽)로도 묘사된다. 이 두 가지는, 함의는 정반대이지만, 질서 유지의 논리가 아니라 질서 전복의 논리다. 그렇다면 연공제에서 질서 논리와 전복 논리의 관계는 무엇인가. 가령 전복의 논리는 권력의 중심부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이철승이 연공제 타파를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집단은 다름 아닌 청년이다. 이철승은 386세대가 정치적으로는 이전 세대를 전복했지만, 한국형 위계 구조를 유지하는 데에는 공모했다고 본다. 386세대까지는 “위계 조직에서 세대의 네트워크를 따라 한 걸음씩 밟아가다 보면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질 것을 ‘집단적으로’ 믿었”(307쪽)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공모에 동의하지 않는 첫 번째 세대가 오늘날 청년 세대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주의 문화를 이유로 꼽는다.

나는 청년이 연공제를 꼭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하더라도 그 이유가 개인주의만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철승도 언

12) 이철승의 또 다른 언급에 따르면 “유교 사상은 왕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에게 ‘명분’만 있으면 ‘언제나’ 봉기하여 중앙권력을 장악할 ‘담론상의 기회 구조’를 제공했다”(43쪽). 명분의 근거는 수행평가다.

급하지만 연공제 자체는 불평등을 함축하지 않는다. 특정 시점에서는 나이나 기간에 따라 각자 위치가 다르지만 길게 보면 같다. 모두 나이를 먹고, 떠나고, 죽기 때문이다. 『82년생 김지영』으로 알려진 작가 조남주의 첫 장편소설(2011)에서 발췌한 인용문은 연공제를 전제로 한 말이다. 방 송국에서 일을 못한다고 늘 “꼴통 소리”를 듣던 후배가 자신을 구박하던 선배에게 술자리에서 술김에 맺은 말이다.

근데요, 선배. 젊은 사람한테는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어리고, 어리니까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지위도 낮은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만요. 시간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시간이 가면 그 한심한 어린 놈들도 나이 먹고, 경험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지위도 높아져요. 그럼 예전에 잘나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늙고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때는 상 황 역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한테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젊 다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 잘 나가서가 아니라 잘 나갈 가능 성이 있어서(43쪽).

소설에서는 실제로 오년 만에 상황이 역전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 은 사람이 자신의 ‘선배’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문제 고, 그렇게 느끼는 것은 연공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 른다.

한편으로 연공제 타파 이후에 위계의 축은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 도 하게 된다. 이철승은 일정 부분 ‘능력’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청

년이 걸로 말하는 것도 능력(또는 노력)이기는 하다. 그러나 ‘능력주의’라는 말이 갖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이미 많은 사람이 지적한 바 있다. 능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이보다 훨씬 불확실하고 불명료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굳이 386세대의 잘못을 찾자면, 그것은 한국형 위계 구조를 공고히 한 것이 아니라 한국형 위계 구조를 깨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청년이 거부(비판)하는 것은 연공제 자체가 아니라 연공제라는 허상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 질문은 세대 불평등이 어느 정도까지 한국 고유의 현상인가다. 이 질문은 비교사회(불평등)론의 맥락에서 한국사회의 위치가 좀 더 명확해지기를 바라는 기대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이철승은 세대라는 앵글의 유효성을 한국형 위계 구조라는 맥락에서, 넓게는 (서양사회와 대비되는) 동양사회 위계 구조라는 맥락에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을 부각하기 위해 동서양의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동아시아 내의 차이는 언급하지 않는다. 유럽과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도 1980년대 이래 세대 프레임으로 불평등을 보는 논의가 특정 연구를 꼽기 어려울 만큼 꾸준히 나온다. 그렇다면 이들 사회와 같은 점은 무엇인가. 반대로 동아시아 사회끼리도 세대 관계나 위계 구조의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는 연구도 있다(나카네 1984[1981]; 미야지마 2013). 그렇다면 이들 사회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촘촘하게 해명된다면, 생산 체제-위계 구조-불평등 양상을 있는 비교사회(불평등)론의 분석틀이 한층 정교해질 것이다. 더불어 한국사회 고유의 불평등을 해명하는 시각으로서 ‘세대’ 개념이 갖는 자리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이들 질문이 이철승이 후속작으로 예고한 『한국형 위계 구조의 형성과 기원』에서 검토되기를 기대한다. ~~2022~~

참고문헌

- 김기현. 2018. 『청년프레임』. 한국학술정보.
- 나카네 지에(中根千枝). 1984[1981]. 『사회구조의 비교: 아시아를 중심으로』. 김택규 편역. 영남대학교출판부.
-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2013.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새로운 한국사의 이해를 찾아서』. 너머북스.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레디앙.
- 이철승. 2019[2016]. 『노동-시민 연대는 언제 작동하는가?』. 박광호 옮김. 후마니타스.
- _____. 2017. “결합노동시장 지위와 임금 불평등의 확대(2004~2015년).” 『경제와사회』 115. 103~144.
- _____. 2019. “세대, 계급, 위계: 386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 『한국사회학』 53(1). 1~48.
- 정이환. 2002. “한국은 장기근속과 연공임금의 나라인가: 미국과의 비교.” 『경제와사회』 53. 262~288.
- 조남주. 2011. 『귀를 기울이면』. 문학동네.